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치유를 위한 심리적 공간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수진

# 치유를 위한 심리적 공간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수진

# 인 준 서

이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 본인은 상상을 통하여 심리적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이상 공간이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극히 완벽하다고 느껴지며 내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상상을 통해 스스로 위로 받을 수 있고 정신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공간을 찾기 위한 상상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본인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한 감정과 안정의 상태를 얻기 위해 상상을 통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낸다. 현실 경험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안감의 심리 상태에서 이상 공간을 찾는 것이다.

현실에서 외로움과 정신적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진솔하고 보편적인 치유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이 언급하고 있는 이상 공간은 현실의 도피처만이 아닌 현실에서의 극복과 더욱 나은 삶을 바라보도록 하기위한 돌파구이다.

살아가면서 힘이 부치는 일들, 그 속에서 오는 인간의 외로움, 고독함. 인간은 예술이라는 감성적 수단을 통해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미술은 인간들 삶의 반영이고 표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현실적인 부분과 마주하며 그것을 치유하고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상상을 통한 이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이상 공간을 통해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작품형성 기본 배경 .....	4
1. 개인적 공간 탄생 .....	4
1) 심리적 공간 .....	7
2) 창을 통한 상상의 풍경 .....	8
3) 이상 공간을 통한 치유 .....	10
2. 공간 속 대상의 의미 .....	12
1) 창'1 .....	12
2) 의자 .....	14
III. 작품 해석 .....	16
1. 색의 의미 .....	16
2. 창을 통해 본 상상 공간 표현 .....	20
3. 심리적 공간을 통한 치유 .....	27
IV. 결론 .....	33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록

- [작품 1] another space 41x 94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2] 확장된 공간 65x91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3] desire space-1 130x130cm oil on canvas 2010
- [작품 4] desire space-2 161x13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5] desire space-3 161x13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6] 기나긴 여행 112x145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6-1] 기나긴 여행 detail 112x145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7] 꿈틀 꿈틀 90x130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8] 평화 112x145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8-1] 평화 detail 112x145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9]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180x120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9-1]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detail 180x120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10] 명상의 시간 90x30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10-1] 명상의 시간 detail 90x30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11] 비상 130x182cm oil on canvas 2013
- [작품 12] 꿈을 싣고 100x50cm oil on canvas 2013

## 도 판 목 록

[참고 도판 1] 르네 마그리트, <외창>. 1963.

[참고 도판 2] 르네 마그리트,

<In Praise of Dialectics (Eloge de dialectique)>, 1937

[참고 도판 3] 르네 마그리트, <저무는 해>. 1964

## I. 서 론

어렸을 적부터 공간이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다가온 의미는 무척이나 뜻 깊었다. 아버지의 곁에는 언제나 건축 설계도면이 있었고, 그 위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신 선 하나하나가 모여 건축물로써 완성되어 하나의 공간이 창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광경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며 ‘설계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각각의 공간들마다 느껴지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승헌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공간에 반하다』에서 “공간은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그냥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교감이 잘 일어나고, 잠재된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 그 에너지는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좋은 에너지를 재창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잘 만들어진 공간은 한 사람의 심리를 활성화시켜 줄 뿐 더러,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양질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샘(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1)</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처음 우리가족의 보금자리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집안 각각 방을 직접 인테리어 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셨다. 다른 집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방’이었지만 아버지의 손으로 ‘또 다른 방’으로 다시 태어난 집을 보며, 교감이 이루어진 공간은 좋은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찼다. 이렇게 공간이라는 의미가 어릴 적 본인에게 기쁘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의미로 바뀌는 계기가 생겼다.

하나의 공간인 방이 본인에게 주는 느낌은 편안한 주거의 목적이라는 명목보

---

1) 이승헌, 『공간에 반하다』, 도서출판 미세움, 2012, pp.15-16

다 텅 빈 폐쇄된 방안의 고독한 외로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감정은 학업을 위해 홀로 상경한 이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가족과의 이별로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고독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집안 빈방에서 홀로 있을 때면 본인은 외로운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생각에 빠져야 했다. 본인은 당장의 불안한 생활, 혼자서 해결해야 할 생계, 그 안에서 다가온 위기와 시련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시도하려 하였고 이겨내고 노력의 결실을 맺는 쾌락의 상상을 하였다. 본인은 당장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상상,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기도 하며 안정되고 따뜻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상을 꿈꾸게 되었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방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그 곳은 외로움의 감정 속에서 본인만의 탈출구가 되었다. 이러한 밝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에서는 공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 따뜻한 불빛 속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와는 달리 적막하고 냉랭함이 느껴지는 게 싫었다. 그래서 본인은 방안 곳곳을 밝고 비비드한 색의 사물들로 공간을 조금씩 채워갔다. 발랄하고 생생한 색감을 가진 물건을 보면 본인방에 두고 싶어서 하나하나씩 구입하는 게 취미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색들에서 에너지가 느껴졌고, 본인의 심리를 활발하게 하며, 비비드한 사물들을 방안에 배치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처럼 색의 배치는 본인의 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이라는 공간은 본인의 감정해소를 위해 지정한 탈출구가 되었고, 인테리어 잡지, 실내 공간 이미지들은 본인에게 수많은 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며, 공간을 제시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감정 상태에서 나온 초기 작품들은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 가 되었다. 수많은 공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이 방들은 사물들도 단조롭고 의자라는 대상이 작품 속에 하나씩 배치되어있다. 전

체적으로 시각적 폭이 좁고, 클로즈업되어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홀로 있는 의자는 외로움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일탈을 자유롭게 상상 할 수 있는 탈출구의 장치인 창과 액자 속에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긍정적 이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이 작품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간은 실내라는 실제 공간과 창과 액자 안의 상상의 공간으로, 실내라는 한정적인 공간이 상상이라는 무한한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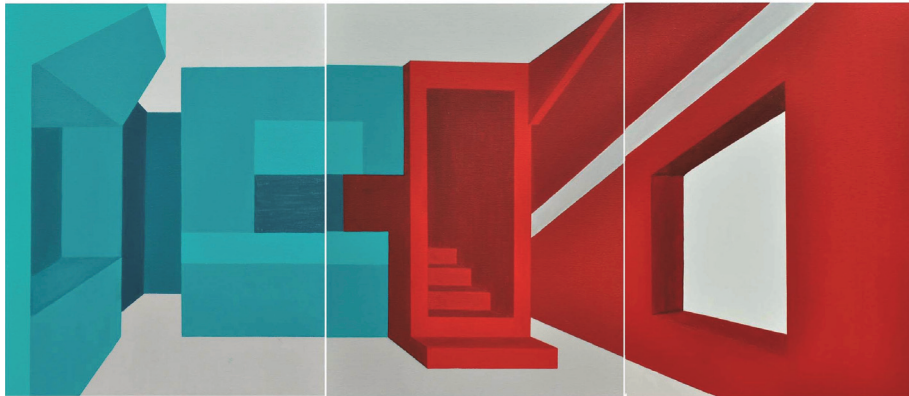
[작품 10],[작품 11],[작품 12]에서는 앞서 설명한 작품과는 다르게 특정 공간인 방이 사라졌다.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에서 언급한 창밖 풍경의 화면 전체가 본인의 심리상태로 나타난다. 본인이 처했던 상황들 속에서 심적인 상태를 공간의 색, 공간 안에 짜여있는 구성, 그리고 의자라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진다. 이어 본인이 겪은 일들, 직면한 일들을 통해 본인의 심리 상태 등을 드러내며 작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힘을 빌려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 II. 작품형성 기본 배경

### 1. 개인적 공간 탄생

본래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는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의 형태 그 자체가 이미 의미심장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며,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들의 시각세계를 심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회화적 공간은 물리적 철학적 의미의 공간과 달리 감각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대상뿐 아니라 공간 자체에 대한 회화적 재구성 방식 및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이것은 화면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여 “ 선, 형, 색채 등의 시각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차원적 매개물의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sup>3)</sup>



[작품 1] another space 41x 94 oil on canvas 2011

2) 김복영, 『현대공간의 조형론』, 홍익미술 3, 1974, p.1

3) Rudolf Arnheim,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신서, 1981, p.366



[작품 2] 확장된 공간 65x91 oil on canvas 2011

[작품 1]과 [작품 2] 는 본인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간의 확장과 공간 연출에 대해 연구 한 작품 이다. 조형 요소인 선을 이용하여 면으로 만들고 공간을 조형화 하며, 공간 개념을 파악하고 공간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지각 원리와 공간표현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공간작업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작품 3] space-1

130x130 oil on canvas

2010



[작품 4] space-2  
161x130 oil on canvas  
2009



[작품 5] space-3  
161x130 oil on canvas  
2009

[작품 3], [작품 4], [작품 5]는 공간 속에 여러 색이나 사물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공간을 표현했다. 여러 가지 실내 이미지들을 보며 본인은 그 이미지에서 색을 바꾸거나 특정 요소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개인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처럼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은 실제공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본인만의 새로운 공간이 되는 것이다.

## 1) 심리적 공간

어렸을 적 경험을 떠올려보면 본인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본인 주위를 둘러쌓거나 인형으로 주위를 둘러쌓아 누군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려고 했다. 이처럼 본인은 항상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스스로 방어라는 심리적 안심처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현대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공유해야 하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기 마련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의 대상으로써 인생의 목표 중 하나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장소이다. 또 그 안정감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저장되고 기록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추억을 남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하는 상상은 본인을 불안한 현실에서 방어해 주거나 또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해주는 휴식처가 되어준다.

상상력을 기초로 한 감정의 이미지는 표현 예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자극제가 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에서 표현된 감정의 이미지들은 상상을 통해 자기 정신의 극복 과정과 심리 치료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듯 현실에서 오는 심리적 경험의 모습들은 우리가 소유한 일상에서 탈 일상을 꿈꾸게 한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도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현실을 통해 깨어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작품 속의 심리는 본인의 생활 속 경험에서 나왔으며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다. 본인 작품에서 나오는 심리적 상황은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에서는 창으로부터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에서는 화면의 전체적으로 표현 된다.

## 2) 창을 통한 상상의 풍경

본인은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접하게 된 적이 있다. 마그리트는 그림 속의 심오한 철학적 주제를 어릴 적 동화에서나 꿈꿔왔을 법한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장면으로 표현해냈다.

마그리트의 작품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와 같은 ‘창’에 관한 그림들이다. 창을 소재로 하여 그림과 창, 창과 창밖의 모습, 그림과 창밖의 모습 등을 작품으로 그려낸 것이었다.



[참고 도판 4] 르네 마그리트, <외창>. 1963.

[참고 도판 5] 르네 마그리트, <In Praise of Dialectics (Eloge de dialectique)>, 1937

[참고 도판 6] 르네 마그리트, <저무는 해>. 1964

본인에게서는 창문이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난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통로로 해석 된다. 창에서 보여 지는 풍경과 공간 이미지의 풍경이 하나의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창 속 에서 보이는 풍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

구적 공간이다. 그 공간은 상상의 공간이 된다. 그 곳에서 표현되는 자유의 감정 상태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으로 묘사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창은 벽과 창문이라는 공간과 공간을 단절시켜 주면서 동시에 현실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연결 시켜준다. 이와 같이 창에 비친 공간의 형성은 실내공간과 창 안의 공간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은 집으로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빈집을 들어서는데 동시에 방안 창문을 열어 놓는다. 텅 빈 방안이 창 밖에 보이는 풍경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본인의 방과 이어지는 연장된 공간처럼 홀로였던 외로운 본인의 마음을 감싸 안아 주는 것만 같다. 방안에서 창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완전히 자유로운 감정 상태는 하루 중 본인 마음이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작품 속 창에 비쳐 보이는 공간, 그 곳에 보이는 풍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본인이 상상한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것이다. 창 안에서 보이는 본인 자유의 감정 상태는 뒤집힌 도시의 모습, 심해의 풍경, 나뭇가지처럼 죽 뺏은 뺨을 가진 사슴처럼 묘사된다. 이 장면들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으로 상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속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몽환적이고 꿈같은 느낌으로 현실이 아닌 상상의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분위기라 생각된다.

이처럼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의 작품들에서는 현실적인 실내공간과 상상의 공간인 창을 함께 배치시켜 본인의 작품이 단순한 현실공간의 반복이 아닌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이중적 공간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안에서도 실내는 편안함과 안락함의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을 배제한 것처럼 인공적이고 차가운 공간으로도 해석된다. 본인이 화면 안에서 재현하는 창은 현실에서 의미하는 대상과는 다르다. 창을 개입시켜 획일화된 공간을 해체하는 것이다. 창에서 보여 지는 상상의 표현과 실내 공간이라는 현실의 표현이 하나의 장면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안과 밖을 연결 하는 소통의 통로로써 창은 공간의 경계면이라기보다 물리적 공간

과 내면적 공간이 마주하는 지점으로, 한 화면 안에서 두 가지의 시공간이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 주고자 한다.

### 3) 이상 공간을 통한 치유

우리는 모두 이세상의 일부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서 우리는 그 공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형성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치유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바쁜 삶 속에서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자신만의 작은 섬을 만들 수 있다. 치유의 공간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기억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지닌 곳은 바로 ‘우리 뇌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sup>4)</sup>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상 공간·이상향·유토피아의 정의는 이상공간이 결국은 꿈이며, 동경의 세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지만 도달하고 현실화하고자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공간의 추구는 현실 세계 안에서 채워 지지 않는 욕구와 모순 인식에서 출발 하며 우리가 이상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실에서의 피로움과 정신적 아픔을 보듬을 수 있고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 절실하다 생각하였으며,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솔직하고 보편적인 치유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작품 10],[작품 11],[작품 12]에서는 특정 공간인 방이 사라지고 본인의 심리를 바탕을 한 공간으로 표현된다. 본인이 언급하고 있는 이상 공간은 현실 도피만이 아닌 현실에서의 극복과 더욱 나은 삶을 바라보도록 한다.

---

4) 에스더 M. 스티버그, 서영조 옮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더 웨스트, 2013, pp.26-37

살아가면서 힘이 부치는 일들, 그 속에서 오는 인간의 외로움, 고독함. 인간은 예술이라는 감성적 수단을 통해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미술은 인간들 삶의 반영이고 표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현실적인 부분과 마주하며 그것을 치유하고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술이라는 도구가 치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술치료라는 분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미술은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이처럼 작가의 정신도 깃들여있다. 예술의 본질은 이상적인 사회로의 방향과 치유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인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현실에서 오는 불안하고 고독한 외로움을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받아 해소하고 있으며 심적으로 안정과 치유가 되었다. 이처럼 미술 작품을 통하여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 2. 공간 속 대상의 의미

### 1) 창

공간에서 짜여진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창은 안과 밖의 두 가지 공간의 경계적 구실을 하기도 하고, 내부세상과 외부세상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창은 건축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한 요소로 사용되지만, 그것은 공간 생성이라는 점에서 그 이상의 큰 힘을 지니고 있다. 흔히 창은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는 상징적 요소로서 건축의 눈이라 일컬어지고, 많은 건축가들은 건축계획 시 외부 공간 디자인 요소로서 창의 표현이나 그 이미지 창출에 염두를 두기도 한다.”<sup>5)</sup>

창은 안이나 바깥에서 다른 공간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시각적으로 풍경, 빛, 바람 등 외부 세상과 접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창은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볼 수 있고, 또는 밖에서 안을 보며 안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있으며, 안과 밖의 공간의 양립적 요소를 서로 연결 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맡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창을 통해 각자의 공간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일상에서 잠시 여유와 즐거움을 제시한다. 이렇게 창은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관성을 보여주고, 하나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여 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창의 이중 구조는 공간과 공간의 연속을 의미하며 내부와 외부의 대립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sup>6)</sup>

창은 안에서 밖을 바라봄으로, 시각적으로 감상,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5) 김현진, 『건축디자인 요소로서 창에 의한 공간연출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1

6)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 시간 건축』, 김정준 역, spacetime, 2005, p.481

정신적 세계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밖에서 안을 바라볼 때에는 안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창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그 정신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몇 안되는 표상들 중 하나이다. 창은 바깥과 안을 동시에 접하며 개인적 주관과 사회적 주관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이다.

창은 여러 가지 현상을 시각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고 했다. 창은 다른 사람이나, 물질, 자연과의 만남을 가지게 해준다. 이것은 서로의 소통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 ‘소통’을 가지게 해주는 창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관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과 합쳐지는 세계 즉, 감성적인 방면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본인의 그림 속 공간에서의 창이 상징하는 것은, 단지 바라보는 대상으로써의 풍경만이 아닌,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상상이라는 비현실 세계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를 나타낸다. 즉, 그림 속 창은 현실과는 또 다른 상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처럼 공간과 그 공간 속의 창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상상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울 수 있는 본인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 2) 의자

본인의 작품은 현실도 있고 상상도 있다. 본인은 작품 속에서 상상을 펼치지  
만 상상을 하는 본인 자체는 결국 현실에 존재한다. 실내 풍경이라는 공간 안  
에서 현실과 가장 어울리며 가까이하고 있는 대상은 의자가 아닐까?

인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아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자신에 대한 생각  
이나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대상을 자신을 향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  
의 작품들 속에는 의자가 하나씩 구성되어있다. 이 의자는 현재의 ‘나’ 또한  
작품 속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의자를 통하여 ‘나’ 자신의 자아를 표  
현함으로써 의자는 본인의 또 다른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징은 작가의 감  
정에 따라 알맞은 형식의 의미를 넣어줌으로써 나름대로의 표현성을 갖게 된  
다고 본다. 인간은 자기가 지향하는 이상을 만족시키고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  
인 상징성<sup>7)</sup>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어릴 적 본인이 좋아하던 의자가 있었다. 크고 넓은 폭신한 흔들 의자였다. 항  
상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서 본인을 안고 잠을 재워주셨다. 잠이 오지 않거나  
공부가 잘되지 않거나 뭐든 불편한 상황일 때는 이를 해소하고자 이 의자에  
앉아서 지내곤 했다. 이처럼 의자는 심리적으로 본인이 편히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 일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본인은 의자를 통하여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형태와 색은 본인 마음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술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상징이라는 방면에서 볼 때, 본인 작품 속에서 등  
장하는 의자는 표상상징<sup>8)</sup> 작용을 하는 소재이며 본인 작품의 경우 자아를 상

---

7)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성질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징성 [symbolism] (무용이론사전, 2011.9.5, 메디컬코리아)

8) 상징은 예술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서 개개의 감각형상 안에 본래는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을 구현하  
는 경우를 가리키며, 표상상징과 기본상징으로 구별된다. 표상상징은 직접적으로 표현된 대상이 그 자

징한다.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에서 의자는 본인을 말하고 있으며 홀로 있는 외로움을 이야기 한다. [작품 11], [작품 12]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나 혼자에서 우리가 된다. 여전히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상은 나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

체를 의미내용 외에 어떤 추상적인 관념(때로는 다른 구체적인 대상의 표상)을 상징하는 경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징 [symbol, 象徴]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 Ⅲ. 작품 해석

#### 1. 색의 의미

예술에 있어서 공간은 감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적 공간이다. 회화에서의 예술적 공간은 그 안의 점, 선, 면, 색, 형 등의 요소들의 구성으로 형성되며 이를 통하여 화가의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화가 고유의 형상과 정서적 감정을 지닌 2차원적인 평면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신적 공간으로서 진정한 예술적 자유를 지닌 상상의 세계이기도 하다.<sup>9)</sup> 본인 작품 속에 구성된 소재는 일상에서는 익숙한 사물이다. 그 익숙함을 익숙하지 않는 색면의 구성으로 일탈성을 깨고 싶었다. 일상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선의 익숙함과 다른 느낌의 색면의 조화와 회화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은 우리의 내면적인 면, 즉 정신이나 감정에도 작용하는데, 안정된 기분이나 감정, 더 나아가 영혼의 조화를 조절하기도 한다.

회화에서 색채는 본인의 주관과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될 수 있으며 감각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간이미지는 색채의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다.

“ 색채는 미(美)를 통해 우리의 눈을 매혹시킬 수 있다. 색채는 기쁨, 만족, 안정 또는 자극을 전달할 수 있으며 심적(心的)인 효과와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색채는 인간의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단임과 동시에 색채는 촉각이며, 작업하는 연장의 눈이다.”<sup>10)</sup>

색은 그 자체로서 화면상에 깊은 공간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그 깊이 속에 작

9) 박미나, 『색 면을 통한 공간 표현의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

10) 칸딘스키, 『Ibid』 . p.195

가의 무의식과 직관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다.<sup>2) 11)</sup>

색채는 주위 상황에 따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며 이런 느낌은 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나타난다. 그것은 작가의 내면과 이념과 심상을 통해 공간속에 실현된 조형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본인은 공간속에서 의도적으로 비비드한 색감을 쓴다. 이러한 색들에서 에너지가 느껴졌고, 본인의 심리를 활발하게 하며, 비비드한 사물들을 방안에 배치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듯 본인은 실존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색은 본인 본래 감각에서 오는 주관적 색을 선택하며 현실의 색감보다 강하게 표현한다.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는 사물들은 원색적이고 강하게 표현한다. 그런 반면 창에 비친 풍경 공간은 추상적, 표현적으로 제시되며, 몽환적인 색감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의 느낌으로 나타낸다.

실내공간은 붓질을 매끄럽게 하여 회화적인 표현보다는 디자인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안에서 보이는 사물의 정교한 표현을 위해서는 거의 작은 세필 붓을 쓰기도 하지만, 매끄러운 표현을 위해 부드럽고 납작한 모양의 붓도 함께 사용된다. 작품들 속에는 원색의 색감을 주로 이용하는데, 본인은 작품 속 공간에서 깊이감을 느껴지게 하기위해 똑같은 원색을 몇 번이고 올리고 올려 색의 밀도를 높여 준다. 이것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색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11) E.H. 콰브리치, 최민 옮김, 『서양 미술사』. 下, (서울: 열화당), 1981, p.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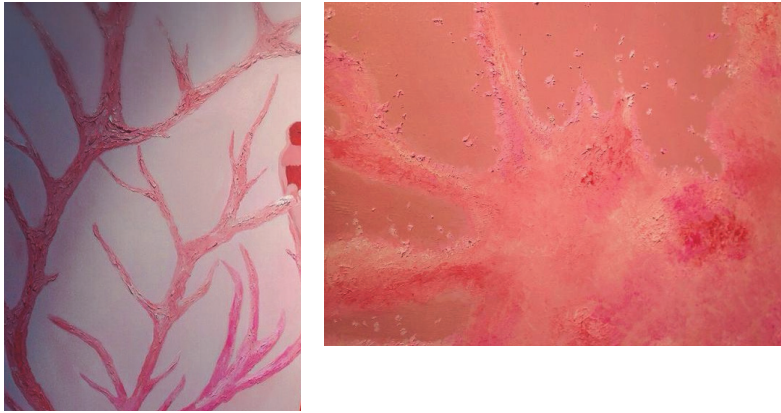
[작품 9-1]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detail 180x120 oil on canvas 2013

[작품 10-1] 명상의 시간 -detail 90x30 oil on canvas 2013

[작품 6-1] 기나긴 여행 -detail 112x145 oil on canvas 2013

[작품 9-1] [작품 10-1] [작품 6-1] 처럼 본인의 작품에서는 선적인 요소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선의 정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테이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둥이나 창문의 블라인드 속 표현, 작품 배경에서 보이는 디자인적인 선 요소들 등은 이러한 테이핑 작업으로 나온 라인들이 합쳐져서 면으로 조합이 된다.

본인의 작품 속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차갑고 적막함이 보여 진다. 그러나 창밖에서 보여 지는 공간은 실내 공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본인의 상상에 대한 풍경을 그린 것이기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상 속의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핑크빛 톤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8-1] 평화 - detail 112x145 oil on canvas 2013

[작품 9-1]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 detail 180x120 oil on canvas 2013

[작품 8-1]과 [작품 9-1] 에서처럼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본인의 감정 즉, 본인의 내면적인 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곳은 거친 붓에 물감을 두텁게 발라 붓질의 느낌을 살려서 물감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이 표현은 본인의 심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한다.

## 2. 창을 통해 본 상상 공간 표현



[작품 6] 기나긴 여행 112x145 oil on canvas 2013

본인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에서의 적막함, 차가움을 본인의 방안 곳곳 밝고 생생한 색을 가진 사물들을 보며 가라앉은 마음을 정화시킨다. 본인의 방안에 배치하는 사물들과 벽지의 색 배치는 실제로 한계가 있었다. 그런 한계성을 넘기 위해 인테리어 잡지, 실내 공간 이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공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며, 공간을 제시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작품들을 보면 의자라는 대상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 홀로 있는 의자는 본인의 모습을 투영시켜 표현한 것이다. 수많은 공간들 중 선택된 방은 [작품 6]처럼 전체적인 화면에서 클로즈업되어있고 시각적 폭이 좁다. 외로움의 심리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창도 본인의 공간 중에서 빠지지 않는 대상이다. 방안에서 창문은 본인이 그 곳을 바라보며 많은 상상을 키우게 된 장치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창은 정신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들 중 하나라고 한다. 처음 상경하고 홀로 타지에서 지내다 보니 본인이 살던 곳에서와는 다르게 삭막하여 우울한 날들도 많았다. 그런 날이면 언제나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되새기며 편안하고 따듯한 상상으로 나를 다독여주었다. 뻣뻣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나와 낙하산을 타고 향하는 곳은 평안하고 안정된 지점. 이 곳을 본인은 이상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본인 역시 그렇듯 모든 이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곳을 향해 가는 시간을 본인은 여행이라 생각하고 항상 여행을 떠난다.



[작품 7] 꿈틀 꿈틀 90x130 oil on canvas 2013



[작품 8] 평화 112x145 oil on canvas 2013

집으로 귀가하면 언제나 그렇듯 창을 활짝 열어놓는다. 저녁이면 시원한 밤공기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아침이면 따사로운 햇빛과 밖에서 지저귀는 새들이 나와 함께한다. 그 순간이면 창문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홀로 나의 시간을 가지곤 한다. 뻘뻘한 삶에서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붐비는 대중교통. 이러한 팽팽한 삶 속에서 나 또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긴장감 속에 정신을 놓지 않고 생활을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삭막함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아 너무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다. [작품 7]에서 보이는 창밖은 뻘뻘하게 솟아있는 장애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처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간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삭막한 삶에서 조금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은 날이 있다. 본인의 꿈 속에서 사슴의 등장으로 편안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다. [작품 8]에서는 그 신비로웠던 사슴을 기억하며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평화로운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길 긍정의 힘을 바래본다.



[작품 9]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180x120 oil on canvas 2013

[작품 9]에서는 여러 색이 겹치면서 공간의 구획이 확장되고, 검정 의자와 반대로 벽을 화려하게 그려냄으로써, 확장된 공간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드러난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색들을 보며 홀로 방안에서 느꼈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지나갔다. 색들이 모여 공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하나의 색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들은 본인의 마음에 더욱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창 밖에는 여러 수많은 감정들로 모이고 모인 본인의 감정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표현되었다. 이 덩어리는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작은 점들이 만개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로운 감정이 아닌 활짝 핀 꽃과 같이 활기찬 감정으로 가득한 즐거운 상상을 펼친다.

### 3. 심리적 공간 속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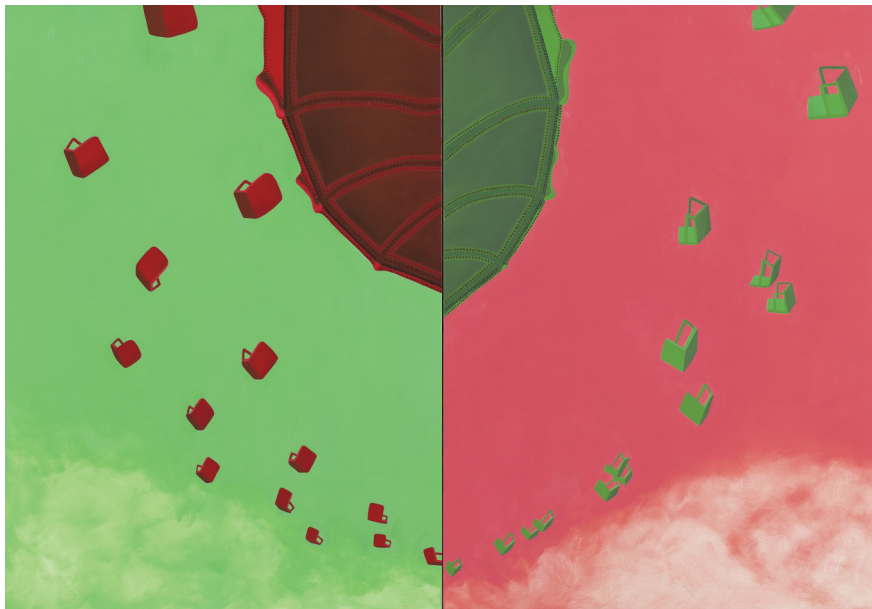


[작품 10] 명상의 시간 90x30 oil on canvas 2013

앞서 본 작품들은 공간 안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상상을 창이라는 도구로 표현을 해낸 것이라면 [작품 10]에서부터의 작품은 창이 없어지고 특정한 방이 아닌 본인의 심적인 상태와 본인이 처했던 상황들이 공간에서 색, 공간 구성, 그리고 의자라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진다. 이어 본인이 겪은 일들, 직면한 일들을 통해 본인의 심리 상태 등의 대립의 관계 속에서 본인을 드러냄과 동시에 작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힘을 빌려 치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의자의 의미는 작업을 진행해가며 더욱 뚜렷해지면서 [작품 10]에서는 의자가 나 자신만을 의미했다면, [작품 11]과 [작품 12]로 가면서는 나와 우리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작품 10]은 본인의 심적 공간을 그려낸 것이다. 본인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일, 미래에 대한 선택의 두려움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버린 시점에서 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가오는 차갑고 시린 마음, 언제나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차가운 마음을 푸르고도 무거운 색으로 표현하였다. 여러 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기둥들은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즉 장애물이다. 이런 장애물을 원근법적으로 그려내어, 가장 가까운 기둥, 중간 기둥, 멀리보이는 기둥들은 현재, 과거, 미래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여 진다. 기둥들에 비춰진 그림자 또한, 상황들이 지나간 흔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홀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자신은 작품 속에서 보이는 하나의 의자이며, 차가운 푸른 공간 속에서 붉은 의자는 본인이 그 속에 있지만 쉬일 수 없으며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 내리라는 의지를 표현함으로 둘 사이가 더욱 이질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작품 11] 비상 130x182 oil on canvas 2013

본인이 외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는 혼자의 감정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외로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신이 더욱 나약해지는 것만 같았고, 이러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 되었다. 본인은 항상 타인에게 웃어주고 기분 좋은 감정만을 내비추어, 누군가가 본인을 떠올릴 때는 언제나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는 더욱 공허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지 못한 마음의 무게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로운 상황 속에서 본인의 힘든 감정만 앞서 다른 누군가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더욱 극대화 되어 보였던 걸까, 서로 감정의 색은 다르지만 누군가도 나와 같이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였던 의자가 [작품 11]에서는 여러 개의 의자가 보여 진다. 다른 누군가들도 공허함 속에서 본인과 같은 감정을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데칼코마니처럼 마치 찍어 낸 듯한 좌우 대칭적 구조에 똑같은 의자의 반복으로 패턴화되어진 모습은 현대 사회 구조 속 획일화된 사람들과 나 또한 그 획일함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본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들과 함께 비상하며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를 바라본다.



[작품 12] 꿈을 싣고 100x50 oil on canvas 2013

현대 사회 구조의 특성상 시스템화를 통해 사람들의 관념과 행동이 획일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라는 체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틀에 따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도 역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따라 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이 해야 할 업무와 본인의 개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의 틀 속에 짜여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속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작품 11]에서처럼 [작품 12]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작품 12]에서 보이는 의자들의 반복 표현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풍선이 주는 희망적 의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구속에서 벗어나, 이겨내고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다.

## IV. 결 론

본 논문은 인간이 현대사회의 현실과 마주하여 드러난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상공간으로 꾸며낸 공간 속에서 치유를 찾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이다.

예술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보이지 않는 면을 드러나게 하여 이성과 감성을 결합시키며 교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예술을 통해 자아의 숨겨진 내면을 드러내고 그곳에서부터 오는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은 논문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작업 과정 속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이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본인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 작업을 담아내고 싶다. 작품 속에서 치유로 갈 수 있는 이상 공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할 것이다.

본인은 작품 진행과정 속에서 창을 매개체로 한 상상의 공간이, 작업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공간 전체가 상상 공간이 되는 변화의 체험을 통하여, 공간 속 풍경에 대해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의 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본인의 삶 또한 하나의 예술로 보고 예술의 소중함과 작품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의 상상과 이상공간을 작품으로 재현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작품은 작가 개인의 감정표현만이 아닌 관객들이 쉽게 소통하고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현진, 『건축디자인 요소로서 창에 의한 공간연출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 역, spacetime, 2005
- 이승현, 『공간에 반하다』, 도서출판 미세움, 2012
- 에스더 M. 스텐버그, 서영조 옮,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더 퀘스트, 2013
- Rudolf Arnheim,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신서, 1981
-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셋길 출판사, 1994, 제 2권
- 자크라캉, 『육망 이론』, 민승기 외 역, 문예출판사, 1994
- 윤인진, 휴이트 존p, 『자아와 사회』, 학지사, 2001
- 김복영, 『현대 공간의 조형론』, 홍익미술3, 1974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 of psychological space for healing**

-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 -

Lee, soo jin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thesis, I attempted to create ideal space through imagination and sublimate it as healing agent of heart.

Ideal space is the space that exists only in the inner world, that doesn't exist in the real world, but that is felt extremely perfect in the thinking realm. It is a space where self-consolation is found and keys to solving mental frictions given through human imagination, though direct experience is impossible. Thus, imagination to find ideal space has been incessantly tried by most of people for long.

I have had many lonely, solitary, and gloomy days contrary to what I had been where I had lived since I came up to Seoul. I have purified my weary heart by putting bright and vivid colored props here and there in my room to forget the stillness and coldness of the house that I feel, coming back from work. I have also created non-existing imaginary space through imagination to obtain calm emotion and stable state of heart not found in the real world. This way, I'd like to express a frank and

universal space that belongs only to me to overcome the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state of insecurity stemming from experiencing the real world. The ideal space that I mention is not merely a shelter from the reality, but a breakthrough to overcome the reality and dream of a better future.

Humans can steer our life full of hardships, loneliness, solitude, and pain to something more positive by means of the emotional measure of art. Since painting is reflection of human life, and outcome of its expression, it faces the realistic part of human mentality, and can play a big role in curing and restoring it. Henceforth, I'd like to create ideal space embodied in my works of painting through imagination, and cure the fundamental problem of human loneliness through the ideal space.